

# 남북 합작 건설기능인력훈련센터, win-win 협력사업 기대

박 용 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북한 당국은 라선·신의주·황금평 등의 중앙급 경제특구와 원산·백두산·금강산 등의 관광특구, 지방급 경제특구인 중소 규모의 19개 경제개발구, 신의주~개성 간 고속철도, 순안국제공항 확충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한다면, 각종 경제·관광 특구와 교통·전력 등의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있을 것이고, 대규모 건설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숙련 인력 수요 폭증 예상

이러한 건설공사가 북한 전역에서 추진될 경우 대규모 건설 인력, 특히

숙련된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향후 북한 내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사전적 확보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평양, 남포, 금강산, 신포 경수로 등 북한에서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건설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건설 기능인력을 공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했는데, 이때 투입된 건설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숙련 인력으로 초기에는 그 활용도가 낮았다.

북한 건설 기능인력들은 초기에는 건설 현장의 잡역부 역할을 하다가 추후에 남한의 반장급 건설 인력들이

북한 SOC 시장 진출시 북한 건설 인력 사용상 애로점

(단위 : %)

설문 항목	빈도	비율
북한 기술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	9	18.8
시공 기술의 부족	3	6.3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	28	58.3
북한 기술자, 기능공에 대한 중신고용제도의 부담	0	0.0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	11	22.9

주 : 본 문항은 다중 응답이라 비율의 합계가 100이 될 수 없음.

자료 : 박용석·박성민·최은정, 「북한 SOC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협회, 2008. 12.

북한 건설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활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설 장비와 공구가 남한에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숙련도와 기술력이 고도화된 건설 기능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필수 공종의 경우, 남한 건설 기능인력의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일례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건설 공사에서는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입체 골조(space frame), 인테리어, 지붕 마감 공사 등 일부 공종의 작업자는 남한에서 동원했다.

**북한 기능인력, 생산성 등 취약**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북한 건설 기능인력 활용상의 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도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3%가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가 22.9%, ‘북한 기술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이 18.8%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 건설 기능인력의 사용은 임금만 남한보다 저렴할 뿐, 질적인 면에선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건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고 있다. 건설 기술인력의 종합 양성 기지의 역할을 하는 ‘평양건설전재대학(현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있으며, 이 외에도 신의주, 함흥, 청진을 비롯한 몇 개의 도 소재지들에 건설 단과대학이 있다.

여기에서 양성된 건설 기술인력들

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특히, 종합적인 건축 창작 및 연구 기지로 1982년에 설립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 기능인력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공장·농장·어장 대학, 기능공학교, 양성소 등에서 직업 기능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건설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장이나 기업소의 작업반별로 철근, 구조물, 목공, 용접 공 등으로 세분하여 기능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이탈하여 몇 주씩 정기 교육을 받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각종 훈련과 교육으로 이들의

북한의 직업 기술 교육기관 현황

구분	공장, 농장, 어장 대학	기능공학교	양성소
입학 대상	공장, 농장, 어장 등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	고등중학교 졸업생, 제대 군인 등	고등중학교 졸업생, 제대 군인, 기업소 노동자 등
교육 기간	5년	6월·1년·1년 6개월	6월·1년·1년 6개월
설치	대규모 노동자가 있는 공장, 국영농장, 어장	기능공 양성이 필요한 물질 기술 조건을 가진 기업소, 공장, 광산, 농장 등	각 지역별 설치
종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광산기능공학교, 림업기능공학교	자동차양성소, 교양원양성소, 간호원양성소, 상업간부양성소
수업 방법	야간, 통상 과정 등	전일제/오전 이론, 오후 실습	전일제/오전 이론, 오후 실습
관리	관리 : 교육성 고등교육부 운영 : 해당 공장, 기업소, 농장	관리 : 중앙노동행정부문 기업소 운영 : 공장, 탄광, 기업소 등	관리 : 중앙노동행정부문 운영 : 유관 상급기관

자료 : 강일규 외 2인, 『북한 인적자원 개발 지원 협력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경영 정보**

숙련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은 현대적 건설 시공 경험이 부족하고 과중한 노동 업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없이 이들을 실무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북 합작 훈련센터가 바람직**

북한 건설기능인력훈련센터는 남북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 1~3일이 소요되는 건설안전 교육과 핵심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단기 교육 과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건설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 안전교육은 총 16시간(2일)이 시행되고 있다. 충북 음성 지역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도포장 기술교육은 3일 동안 시행되는데, 포장개론, 재료 및 품질 등 이론 교육은 전체의 20%이고 나머지는 보도포장 전 과정에 대한 실습 교육이 차지하고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3개월부터 최장 1년이 소요되는 본격적인 건설 기능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의 건설 기능인력 양성 교육은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훈련센터에서 양성한 북한 건설 기능인력은 우선 북한 내 각종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이 외에도 제3국 건설 시장과 남한 건설시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건설사업에 이들을 활용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북한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 기업의 해외건설 현장은 외국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건설 기능인력을 고용했지만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이 본격화되자 2005년 이후부터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제3국의 기능 및 노동력 근로자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현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반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이들을 통한 외화벌이는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남광토건은 북한

개성의 건설회사인 '5.16건설 기업소'와 공동으로 개성, 평양 등 북한 지역과 앙골라 등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2007. 12)하였고, 아천글로벌도 북한 인력 2만명을 중동 건설사업에 파견키로 합의(2007. 12)한 바 있다.

셋째, 국내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 건설 기능인력은 40대 이상의 근로자가 80%를 넘어 고령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내 건설 인력이 기피하는 오지의 도로나 댐, 발전소 등 SOC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언어소통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 현장에서 북한 건설 기능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건설 기능인력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외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win-win)의 남북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ERIK